

# 중동사태와 제3차 석유위기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석유**에 관한 한 이것이 몇십년후에는 고갈되고 말 「유한자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발발전인 1930년대부터 세계의 석유자원은 향후 30년안에 고갈되고 말 것이라고 알려졌다. 韓國동란에 충격을 받은 美國은 제3차 세계대전에 대비하여 자유세계의 천연자원을 조사, 1951년에 페이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원유의 가채매장량은 향후 30년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70년에 발표된 로마 클럽의 보고서도 폐쇄된 우주선 지구호의 석유자원은 앞으로 30년안에 완전히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우울한 비관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석유자원에 대한 인식이 '70년대에 일어난 두차례의 석유위기의 심리적 배경이 된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석유가격의 상승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석유의 가채매장량은 증가한다. '70년대에 北海, 알라스카, 멕시코灣岸등의 해저유전이 개발되고 아울러 천연가스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석유·가스의 공급력을 계속 확대, 이같은 에너지자원고갈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 최근에 발표된 BP석유통계는 1989년말 현재 세계의 석유가채년수가 44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규 석유개발과 회수기술의 진보로 석유매장량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석유매장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물론 고도성장과 인플레이가 계속될 경우 석유수요가 급증하여 수급이 팽박해지고 정치정세 때문에 수급이 억제되면 가격은 급등한다.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는 주로 전자의 경우이며, 1979년말의 제2차 석유위기는 주로 이란회교혁명과 이란·이라크전쟁에 따른 후자의

세계 석유매장량

(단위 : 10억배럴, %)

		확인매장량	구성비	가채년수
北	美	42.4	4.2	10.4
中	南 美	25.2	15.2	50.9
西	유 럽	18.4	1.8	12.6
공	산 권	59.9	5.9	13.0
中	東	660.3	65.2	-
(OPEC)		(767.7)	(75.6)	(92.3)
아	프 리 카	58.8	5.9	27.5
아	시 아 · 대 양 주	46.8	4.5	20.2
計		1,011.8	100.0	44.4

<註> 1989년말 현재

<자료> BP통계

경우에 해당된다. 제1차 석유위기는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이집트, 시리아)간의 전쟁으로 촉발되었으며, 아랍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선택적으로 석유수출금지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유가는 배럴당 10.89달러로 전년대비 255.9% 폭등했으며, OECD의 경제성장은 5%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의 파동기간은 짧았으며, 1975년부터는 다시 유가가 안정되고 산유국의 석유수입경기로 세계경제는 곧 회복국면으로 들어섰다.

제2차 석유위기는 1979년 2월의 이란회교혁명과 1980년 9월의 이란·이라크전쟁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이란은 회교혁명 직후 산유량을 210만B/D 감축했으며, 또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양국의 산유량은

석유위기의 성격과 특징

	1차위기	2차위기	금번
시기	1973~74	1979~80	1990. 8
원인	이스라엘~이집트전쟁  中東석유 공급삭감 단행	1. 이란최교혁명('79. 2) 이란 원유생산 (1979년 300만B / D→ 1980년 147만B / D) 2. 이란-이라크전쟁(1980. ) (이라크원유생산 1979년 345만B / D→ 1981년 92만B / D)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 이라크와 美國 등과의 무력충돌 위기 고조
성격	1. 자원내서널리즘 팽배 (아랍권의 석유무기화)	1. 주유산유국의 사정으로 인한 공급장애발생	1.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이라크, 쿠웨이트 원유공급 차질)
특징	1. 일시적 수급 불균형 (OPEC원유생산 : 1973년 3,083만B / D 1974년 3,044만B / D)	1. 공급장애 장기화 2. OPEC의 지나친 가격 인상 3. 소비국의 비축등 대응태세 미흡	1. 1, 2차 위기시는 공급측면의 수급장애였으나 금번은 소비국 의 금수조치 2. 전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석유파동은 없을 듯 3. 소비국의 비축공부(105일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60만B / D가 줄어들었다. 1981년 이란·이라크전쟁이 격화되면서 쌍방의 유전이 파괴됨으로써 이란·이라크·쿠웨이트의 산유량은 다시 230만B / D 줄어들었다. 1979~1980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총원유감축량은 810만B / D에 이른다.

제2차 석유위기의 결과 아라비안라이트의 현물유가는 1973년의 배럴당 13달러에서 1981년에는 34.3달러로 폭등하고 OPEC는 1979~1980년간 9번의 유가인상을 단행했다. 제2차 석유위기는 발생원인이 복잡적이고 또 파동기간도 1차위기때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타격은 선진국보다 비산유개도국이 훨씬 컸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OPEC와 非OPEC간의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이 격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조절자 역할포기등으로 국제유가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폭락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세계의 석유소비는 1985년 이후부터 연평균 2.7%의 증가세로 반전했고 OPEC의 시장점유율은 회복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45.5%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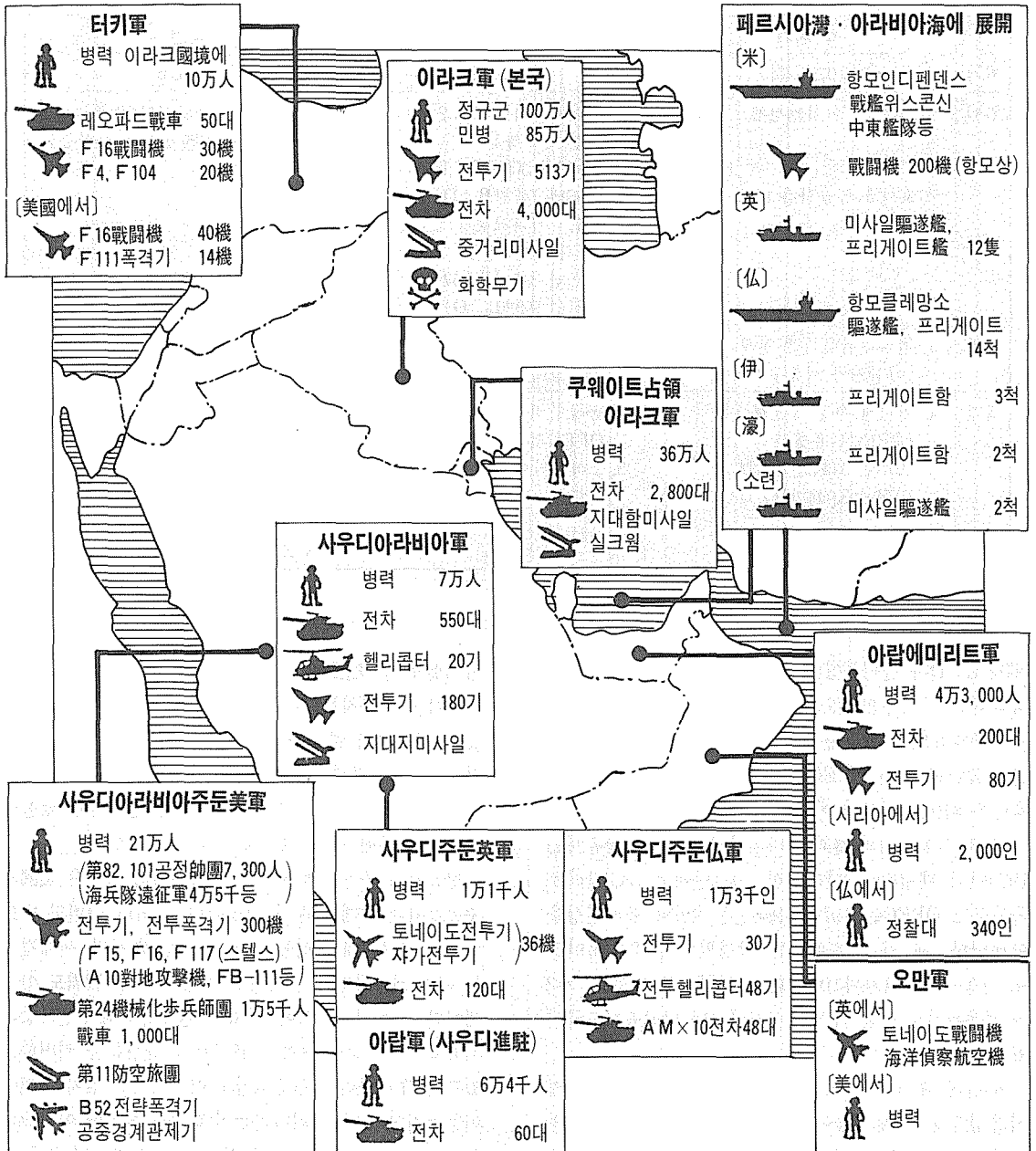
그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中東사태가 6달째로

접어들면서 美國이 두드리는 전투의 북소리와 함께 전운이 급박해지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美國의 수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전군에 최고경계령을 내린채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비판론에 더욱 현실성을 띠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중동사태 전개와 국제유가의 향방은 美國의 중동정책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의 中東 위기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세계경기는 이미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석유에 대한 實需도 안정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등의 석유증산분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감산분을 커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유도입도 아직까지는 별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中東사태 초기에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도입되던 10만9천B / D(장기계약 7만5천B / D, 현물 3만4천B / D)의 도입차질이 발생했으나, 정유사들의 기민한 원유확보노력으로 도입차질분을 畧量 다른 산유국과의 장기계약으로 대체 확보했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투기수요의 급증에 기인된 것으로 현재 수면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해결교섭의

페르시아灣岸周邊의 군사력 배치



진전과 함께 유가는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다.

앞으로 중동위기가 종식되거나 무력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경우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사담 후세인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어질 경우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판매경쟁이 재연되어 유가하락은 거의 필연적이다.

만약 후세인대통령의 영향력이 계속 남는 형태로 중동사태가 종식될 경우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석유수급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석유소비(백만B/D)					
선진국	33.8	34.7	35.1	36.2	36.7
개도국	12.3	12.5	13.1	13.7	14.3
자유세계	45.9	47.2	48.2	49.9	51.0
석유생산(백만B/D)					
OPEC	17.2	19.6	19.1	21.1	23.2
非OPEC	25.3	25.1	25.2	25.3	24.7
평균유가(\$/B)	26.61	13.83	17.28	13.69	16.56
유가상승(%/년)	-6.1	-48.0	24.9	-20.8	-4.2
OPEC점유율(%)	37.7	41.5	39.6	42.3	45.5

OPEC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OPEC의 공급과잉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석유정세는 페르시아만산 산유국들의 산유능력확대동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 지역 이외에 대규모 증산이 가능한 산유국이 없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중대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증산계획은 차질을 빚게되고 석유공급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배럴당 30~40달러의 고유가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신규 액화천연가스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석탄액화등 신기술의 실용화도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후 수년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유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격통제력이 OPEC에 없다. 또 중동위기에 따른 고유가는 석유소비절약과 석유대체에너지·개발과 이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석유가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의 투자를 적극화하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90년대의 석유문제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 석유산업의 발전사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 -